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하다 창세기 49:1, 2, 28, 33

야곱의 생애는 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일생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뜨내기입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사람, 정처없이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야만 했고, 형 에서와 갈등을 가져야 했고, 한 순간도 평안하게 안심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열 두 아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거느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못 건널 일을 많이 겪고, 못 볼 일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렇게 일생을 마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조건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은 기쁜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130세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147살까지 사는데, 17년동안 인생의 말년은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젊어서 고생하셨을지라도, 험악하고 뜨내기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고 안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말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고, 채우심이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로구나. 그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임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야곱의 유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야곱은 드디어 죽은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 때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기근이 있었을 때입니다. 7년 기근 중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에게 고센 땅을 주십니다. 고센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배울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을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이루어드리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신은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축복과 예언입니다. 축복도 주시고 예언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은 먼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후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들어갑니다. 다른 자녀들은 한 지파를 받았지만, 요셉은 두 몫을 받았습니다. 땅도 두 배로 받고 몫도 두 배로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두 배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오른 손으로 안수하고 작은 아들은 왼 손으로 안수하게 되어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 손으로는 작은 아들을 안수하고, 왼 손으로는 큰 아들을 안수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말리려 했지만 야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세상 법칙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을 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전승되는 축복

그런 후 다른 아들을 불러 들입니다.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찌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개념을 발견합니다. 축복은 전승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승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주가 삼 세대라면 축복은 수 천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전승됩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전승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12지파에게로 전승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님들과의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하나는 세대간의 격차입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제시대 이야기, 전쟁이야기만 하니 자녀들과는 대화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세대간의 간격이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와 문화간이 거리가 없는 민족이 지구상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합니다. 어린 아이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율법의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공통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간의 격차가 있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한 가족의 즐거움을 만듭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의 세대가 다르고, 아들의 세대가 다르고 손자 세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없습니다.

가정의 공통분모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대간의 격차, 문화적인 격차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60세가 된 자녀도 믿음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허탈해 졌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처럼 여기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정의 뿌리가 없어졌습니다.

정신적 지주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믿음을 전승시키는 가정, 유언을 믿음으로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는 사람을 늘 갈등하게 합니다. 소유가 많을 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유산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유산을 주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그것이 유산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유산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써주기를 바랍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라’라고 써주기를 바랍니다.

기분나쁜실지 모르지만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뭘 남기고 죽겠습니까? 사업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걸로 아이들이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줘야 합니다. 믿음을 줘야 합니다. 말씀을 줘야 합니다. 내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축복과 예언

어떻게 야곱은 자기 열 두 아들에게 축복했을까요? 몇 사람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불행한 큰 아들 르우벤을 보십시오. 그는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아들이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립니다.

또 한 사람,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보십시오. 5~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찌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찌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염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차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기 자식의 운명을 이야기 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식 가운데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메시아를 태어나게 했던 유다 지파입니다. 8~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찌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움크림이 수자사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불행한 르우벤의 장자권은 동생들에게 갑니다. 두 사람에게 갑니다.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유다는 비록 부족하여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는 지도력이 있었고, 강한 지파로 자라게 된다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지파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 입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 지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심있게 보아야 할 지파는 22절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22~2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어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유다의 축복과 더불어 요셉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 다릅니다. 뿌리는대로 거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십이 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편파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대로 주십니다. 그러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편파적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는대로 거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운명합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나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과 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영원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야곱은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25절과 32절 사이에서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곳에 시신을 묻어달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사십시오. 가끔 사람은 죽음 앞에 서 봐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품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영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